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80906목@정릉연습실 |
| 참여인원 | 연출: 윤한솔/ 조연출: 강대영  배우: 박하늘 원규리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스텝: 조유림PD, 송혜현AD, |
| 내용요약 | 1. 살풀이  2. 승무  3. 춤 배웠던 것 전체 연습.  4. 장면 즉흥 구성  5. 공연 전반적 이야기. |
| 내용 | 1. 살풀이  2. 승무  3. 춤 배웠던 것 전체 연습.  연출님- 연습 때도 살풀이 의상이 있으면 더 좋겠다. 빨리 나와야 할 듯.  살풀이 천도 어떻게 할지. 의상 선생님과 얘기해보실 예정.  4. 장면 즉흥 구성  \*살풀이 카운트, 노래 없이. 틀리면 멈춰라. 누군가 멈추면 다 멈춰라.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틀리면 아웃. 아웃이라고 한 사람은 퇴장.  아웃 하는 건 형식을 찾으려는 것, 틀리고 맞고의 문제는 아니다.  \*2명만 나와서 병신춤,  병신춤 아주 천천히 하면서 공옥진 표정 만들기.  \*뒤에서 댄스센트럴 시작(1명)  앞에서 병신춤 최대한 천천히 하다가 중지, 다른 병신춤 시작, 표정도 같이.(2명)  병신춤 추던 1명 댄스센트럴 합류  남은 병신춤 1명 몸의 호흡이 병신춤 호흡에서 서서히 댄스센트럴 음악 호흡으로 단 춤은 병신춤.  \*뒤에서 댄스센트럴 (1명)  앞에서 승무춤(1명). 댄스센트럴 아웃. 승무춤은 계속 진행.  5. 앞으로의 진행 방향 이야기.  여자들만 캐스팅한 것은 올해 사건과는 관련한 것은 아니다. 원래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옥진에 관심가진 건 춤도 있지만 아버지의 징용을 대신해 천원에 팔려간 딸에 대한 주목이였다. 현대사도 그랬지만, 징용을 피하기 위해서 거래 될 수 있었다는 것.  그런게 처음에 눈길을 끌었다. 근데 그게 지금 위안부할머니의 이름을 아는 사람도 잇지만,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과거였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문제시 되지 않았고. 그 얘기를 하고 다녔음에도.  이런저런 토론을 했는데, 여성으로서의 공옥진을 보는 것. 더 쉽게 얘기하면 여성주의로 공옥진을 읽어 내는 것이 하나 남았다.  이 얘기를 초반에 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나, 그것 때문에 여자만 캐스팅한 이유였다.  본격적으로 장면이 잡혀지기 전에 지금은 한번쯤 얘기를 할 시기라고 생각.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스케치를 하기 위한 계획은 대부분 끝났다.  연출적인 구성안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 됬다. 스케치한 것을 어떻게 장면화하고 어떤 순서로 배치할지.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구성안으로 정리를 하겠다.  조금 전 얘기처럼 현대사의 질곡이라고 얘기하면서 여성의 공옥진은 잘 나오지 않는다. 캐릭터도 이유가 됐을 거고, 시대적도 마찬가지. 시대적이라 하면 감수성이 예민하지 않았던, 인권이나 젠더 모두.  주 활동시기가 군 독제 시기였고.  토론 때 흑인비하얘기도 지금 시대면 어땠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결국엔 태도의 문제일 것이다. 공옥진 소재로 공연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공연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예를 들면 광주역 천엔에 팔려가고 대사가 있으면 그 말을 어떻게 들리게 할 것이냐 인거다.  그 어떻게는 예를 들면, 남의 전쟁에 끌려가야 하는 시대. 강점기라는 것에 방점이 찍힐 수도 있고, 남자의 징용을 피하기 위해서  여자가 돈에 팔려 갈 수 있는 시기. 어디에 방점을 찍냐의 문제. 이것이 고민이다.  박하늘- 장애를 가진 사람 중에서도 장애여성이 더 약자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공연에서도 그런 얘기를 더 하는 건지  장애와 여성을 합쳐서.  연출님-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7명 전체가 다 장애인일 때 세계랑, 3 명일 때, 4명, 1명이 장애인일 때  세계의 차이. 숫자, 영역의 범위. 장애가 다수 일 때 세계를 상상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  임정희- 여성주의가 들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태도를 갖고 있으라는 건지?  연출님- 태도는 보인다. 공연에서 유일하게 보이는 건 태도다.  임정희- 딱 표현하지 않은데 어떻게 보이나?  연출님-표현한다고 하지는 않았는데, 표현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 그게 들어날 수 있는. 그 태도가 들어날 수 있는 방법. 계속 그것을 찾고 있고.  임정희- 연출적으로 장치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연출님-구체적으로 계획은 없지만,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  임정희-지금 현대문제에선, 공옥진을 거부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 그런 식의 태도(가부장의 피해자이나 그 이야기를파는  연출님- 그것까지 포함하는 것. 공옥진을 고발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천엔에 팔려간 것을 공연에 언급하면서 낭만화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비판적 얘기가 필요하고 공연에서 어떻게 들어날 수 있냐의 문제. 수구였던 것. 이 비판적 입장을 어떻게 보여 줄지가 남은 문제다.  그 사람의 춤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보고 비판으로 계승 할 것이냐, 남편 말 잘 듣고 그런 것도 똑같이. 대사로 들어낼 생각은 없다. 힘이 너무 약하다.  지금까지 리서치, 토론의 과정이 공옥진,현대사를 읽어내는 것. 아까 얘기했듯이 여자배우들만 캐스팅한 것은 공옥진이 가지고 있는 여자로서의 이율배반적인 것을 고발하는 것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  남은건 정치적인 문제가 남은 것.  그 시대를 이해 할 수 있느냐는 것과 지금은 그럴 수 없다 에 방점이 찍혀 하는 것. 공옥진이 자기가 팔려갔다는 것을, 팔아 먹고 있는 거다. 다분히 의도적이라 생각. 그 당시에도 그게 문제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관객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그 얘기를 계속 팔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토론하는 과정에 포함하지 않았던 이유는, 공옥진에 대해서 충분히 읽어내지 못했는데 섣부른 결론이 나올까 봐 그랬다.  박하늘 잘은 모르겠지만 우스꽝스럽게 보였던 문제도 있고 공옥진 스스로가 가진 한을 알고 공연을 보게 됬는데.(팔려간얘기등  우리는 그런 한은 아니지만 연습량 이라던지 그런 밀도를 가지고 공연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밀도적인 것 말고의 한이 필요치는 않은 건지?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시선 이라던지,  연출님 공연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질문인지? 공옥진이 얘기하는 그런 똑같은 사건으로 비롯된 감정이나 한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박하늘 공옥진의 병신춤을 택해서 따라 하는 우리들을 보는 사람들은 뭘 보려고 할까요  연출님 그건 나도 모르겠다. 그 사람이 아니라.  최지연 무대에서 계속 써 먹은게 비판할 일인가?  연출님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슬플, 그림 같은 얘기로 하는데 그렇게 만듦으로써 본질을 흐리게 하는.  의심하지 않게 만드는. 그냥 불쌍하게 생각할 뿐이지. 남자의 징용을 피하기 위해서 여자가 돈에 팔려가는 것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게 만드는 것.  공옥진은 자기 신화화가 필요했고 창의적인 것 이다. 나는 공옥진이 제일 문제되는 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공연 안에 재생산한 것. 그 시대에 가부장제 부모의 역할, 그런 걸 떠나서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건 아버지 때문에 팔려가는 걸 정당화했던 것이다.  임정희- 말미에 그런 것을 신화화 하는 게 있다.  원규리 이 시대에 똑같은 것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럴까?  연출님 난리 날 것이다.  연출님 오입해온 남편 용봉탄 그런걸 대사로 넣으면 공옥진을 그냥 고발하는 것. 이건 초기 생각 이였으나, 이건 너무 쉽다. 그랬을 때 득실을 따졌을 때 실이 더 많은 것 같다.  박하늘 그럼 안 하는 건가?  연출님 이 내용은 안 할 것 같다.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을 찾아야 하는 것.  공옥진이 그 시대에 대단히 나쁜 사람 이여서의 문제는 아니다. 누구보다도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 일 수도 있다. 장애, 소수자에 대해.  광주 대사를 따온 이유는 다 수제자라고 그러니까 다 같이 읽어본 이유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저게 가질 수 있는 정서적인 힘들을 무너트려 보는 것.  의미를 폄하하거나 조롱하는 것 다 같이 함으로써.  누구 흉내 낼 때 한 명이 할 때랑 때로 하는 게 다른 것처럼.  일종의 공옥진에 대한 조롱이다. 즉 공옥진을 해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공연 중에 어떻게 하느냐 보다 도 이 질문들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이 질문들이 만들어내는 태도도 중요한 것 같고.  이 생각은 전통에 대한 비판적 읽기는 지금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 두번 째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  우리 입장은 어떻게 할 것 인가. |
| 공지사항 |  |
| 연출부 고려사항 |  |
| 해야 할 일 |  |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80905수@정릉연습실 |
| 참여인원 | 연출: 윤한솔/ 조연출: 강대영/ 무대감독: 박현지  배우: 박하늘 원규리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스텝: 윤민철(영상) |
| 내용요약 | 1. 춤워크숍(김옥순선생님)  2. 살풀이 연습  3. 병신춤 뷰포인트  4. 영상 스텝회의. |
| 내용 | 1. 춤워크숍 (김옥순선생님)  승무, 반염불, 전통춤  2. 살풀이 연습(최지연배우리드)  원규리- 너무 다 달라서, 최지연배우가 제일 잘아니까 봐주는 것이 좋아보인다.  임정희- 반반 나눠서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반은 봐주고.  박하늘- 원규리는 너무 몸을 트는 것 같다.  3. 병신춤  동작들 리뷰하고, 응용하는 엑서사이즈.  2명이상만 계속 무대에 있을 수 있게 등퇴장.  \*뷰포인트 작업.  박따러가세로 퇴장까지.  싸비든 어디든 전체가 맞출 수 있는 동작을 만들기.  \* '내가 제일 잘나가'에 맞춰서 병신춤으로 안무 만들기.  얼마나 병신 같이 하느냐가 문제 인 듯.  이게 공연의 마지막인데, 그러면 얼만큼 공옥진이 한 것만큼 표정이나 몸의 뉘앙스를 남기고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  이 시점에선 춤이 되야 하는 시점인지. 아닌 건지.  공연을 시작부터 여기까지 봤으면 이게 병신춤인 것을 알긴 알 텐데  이게 지금 고민인 것 같다.  4. 영상 스텝회의  배우들 전 날 와서 리허설하고 공연  사이드로, 객석 한 줄 빼면 된다.  캐릭터 더미 버전으로 하고 있고. 헤어, 옷 만드는 사람이 달라서. 지금 고민 중이다. 옷이 펄럭거릴지 말지.  연출님 공옥진 영상을 보면 되지 않나.  표정은 두번 째 사진이랑 비슷하게 나올 듯 하다.  연출님 공옥진인건 알 수 있는 건가  그렇다.  연출님 제작하는 과정 중 모션센서로 구현되는걸 보여줄지 말지. 그게 좀 필요할 듯.  그러면 탭 같은 거 붙이는 거 필요할 듯.  연출님 벨크로를 다 다는 형태가 되나?  그렇다.  연출님 실제작동은 키네틱식. 탭은 속임수.  구현되는 원리용 1개 [여기선 그냥 더미캐릭터가 좋을 듯]  게임처럼 공옥진 나오는 1개  맨 마지막에 보이는 게 더 재미 있을 듯  춤 녹화 촬영은 하니까.  연출님 작업은 의상에서 하면 되는데 벨크로 위에 붙는 쉽게 말해 탭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센서 역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벨크로 안에 다 있는거다.  연출님 마지막 영상은, 장영규씨가 음악 하는데 음악이 먼저 나와야 할 듯.  다음주 중 빼달라고 해야 할 듯.  안무가 될 수 있는 쪼가리 연습 중  광주 샤를 어떻게 쓰는 건지  결정을 빨리 해야 할 듯.  연출님 샤 거는게 문제.  80석만.  연출님 남산은 어떻게 할 지.. 샤..  여기는 아무데나 리어 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  무대를 더 깊이 들어갈게 아니기 때문에  연출님 광주는 자막스크린을 어떻게.  앞에서 쏘고 프로젝터를 나눠야.  연출님 남산은 따로 하는데  \*남산 자막용 스크린 확인.  연출님 리어 스크린을 쓰고 자막은 프론트에서.  연출님 흰색댄스를 쓰냐 안 쓰냐 고민.  흰색바닥에 리어 스크린이면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매력이 있는 듯.  2층에 올리면 와이드가 6메다?  연출님 게임영상이 압도적으로 크게 나왔으면..가득  높이는?  16:9 사이즈 8잡으면 4.5.  커 보이는건 스케일데로 가는 게 커 보임.  연출님 남산 리어스크린있었나.  치정 때 쓴 그거다.  연출님 스크린7메타14메타?  네 7에14  연출님 댄스바닥 회색으로 가자  흰색은 3롤. 있어야 60만원  캐릭터 올 흰색.  내일 음악 다음주 초 연습방문. 음악 최대한 빨리  촬영 20일 주 촬영하고 한번 더 해야 함.  한번 더는 극장 들어가서 해야 할 수도  이펙트는 가능한 최대한.  연출님 음악 들어보고 효과를 찾으면 될 듯.  남산 제안 쉬는 날 좋다. |
| 공지사항 |  |
| 연출부 고려사항 |  |
| 해야 할 일 |  |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80904화@정릉연습실 |
| 참여인원 | 연출: 윤한솔/ 조연출: 강대영  배우: 박하늘 원규리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
| 내용요약 | 1. 살풀이 연습  2. 공옥진 수제자인데요. 텍스트.  3. 장면구성 즉흥  4. 재담 |
| 내용 | 1 살풀이 연습.  2명씩 / 체크.  연출님- 어떻게 군무를 출지 고민이다.. 7인 7색이다.  2그룹으로 나눠서 3명, 4명  연출님-  살풀이 군무를 맞춰야 한다.  지연, 규리 카운터로 맞추는 것은?  정양아 거울 보고 한번은 맞춰야 할 듯 하다.  연출님-  최지연배우 추는 게 기준이 되면 그것에 맞출 수 있지 않나?  각도나 높이 이런 디테일 한 것은 두고 나머지는 맞출 수 있지 않나.  한 사람이 기준이 되고 그것에 다 맞춰야 할 것 같다.  각자의 느낌이 나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냥 다 각자 다르다.  장면이 요구하는 것은, 다 연습을 했다는 것인데. 연습을 했다는 게 보이는 것은 맞추는 것 뿐이다.  공옥진으로 시작한 것이지만, 이 안에서 연습량이 보여야 되는 문제이고. 이 남은 시간 안에 한국무용으로 대단한 감각이 나오는 건 어불성설이고..  박하늘- 방법 중 하나로 드는 생각은, 최지연배우를 기준으로 배우는 것이 좋아 보인다.  연출님-  결국엔 배운 것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서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건데 마찬가지다.  우리끼리 결정해서 하면 된다. 지름길이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시간의 문제인 듯 하다.  음악을 틀어놓으면 몸에 장단이 베일 것이고, 누군가를 장단을 불러주던 택하면 될 듯하다.  임정희 한 명씩 잡으면서 가야 할 것 같다.  연출님 - 작은 디테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큐도 다르고 다 틀리게 추고 있다.  뭔가 기준이 되서 그 기준을 잡아야 할 것 같다.  정양아- 순서를 먼저 입장단으로 외우는 게 좋아 보인다. 우리끼리 맞추려면 입장단이 좋긴 하다.  정확히 몇 박인지 음악으로 외웠다 보니 잘 모르는 게 문제지만.  원규리- 정양아 배우에 맞춰서 해보는 것은?  정양아- 순서를 외우는 게 먼저고, 그 다음 디테일이 먼저인 것 같다. 계속 그냥 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연출님- 누군가 기준이 되는 게 좋아 보인다.  한국장단으로는 맞추기 어려운가? 카운터를 만들어야 하나?  정양아- 똑 같은 거다 덩덕 이나 카운터나  연출님  공옥진에 맞출지 우리끼리로 맞출지 살풀이 동작 정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공옥진 살풀이가 보편적으로 이상한 살풀이인가?  최지연  아니다, 공옥진 선생님만의 연기적인 게 있는 거다.  2. 공옥진 수제자 텍스트.  공옥진을 만난 얘기는 필요 없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공옥진의 수제자 라는 것을 내용으로 증명해야 하는 문제는 아닌 것 이다.  연출님- 한명 나가서,  [1]사실은 제가 공옥진의 수제잔데요.  [2]사실은 제가 공옥진이에요.  이 2 문장으로 앞에 문장을 부정해보아라.  세상에 처음 알리는 것이다.  ㄴ사실은 제가 공옥진의 수제잔데요, (두번)  ㄴ부정,) 사실은 제가 공옥진이에요.  ㄴ또 부정 사실 제가 수제자-  ㄴ 또또 부정 사실 제가 공옥진이에요.  한 명 더 나가서 옆에서 똑같이.  연출님  거짓말인 것을 아는 거짓말이다. 거짓말 이여야 한다.  앞에 말을 계속 부정 해야 한다.  3. 장면구성 즉흥  한줄로 서서, 병신 되기를 할거다. 한 명씩 늘어날 텐데. 장애와 비장애의 비율이 2:5, 3:2 등등, 제일 끝 사람이 시작해서 옆으로 한 명씩 늘어난다.  속도는 조절하면서 장애가 되가는 과정을 보여주면 된다.  하지만 마지막 사람은 하지 않는다.  병신 되기가 끝난 나머지 사람들은 천천히 몸을 돌려서 마지막 사람을 보라.  다 보면, 마지막 사람 시작. 마지막 사람 다 되면 한번에 몸을 풀어버려라.  한번에 풀고 퇴장.  아무나 한 명 마지막 사람 옆으로 등장.  사이를 두고 한 명씩 계속 등장.  다 등장하고 나면 마지막 사람이 등장한 사람들 보기.  다시 한번 더.  이번엔 순서 없이 정해놓지 않고 시작.  4. 재담  시대 말투 쓰는 건 괜찮은데, 하면서 이게 재미없다고 생각하라.  우쭐하다가 비참해지고 익살떨다가 상처입고, |
| 공지사항 |  |
| 연출부 고려사항 |  |
| 해야 할 일 |  |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80903월@정릉연습실 |
| 참여인원 | 연출: 윤한솔/ 조연출: 강대영/ 무대감독: 박현지  배우: 박하늘 원규리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
| 내용요약 | 1. 춤워크샵(김옥순)  2. 살풀이  3. 공옥진 텍스트.  4. 재담  5. 공옥진표정과 춤  6.병신 만들기 과정  7. 의상 회의 |
| 내용 | 1 춤 워크샵(김옥순선생님)  2 살풀이 연습  3. 공옥진텍스트 다 같이 호흡 맞춰서 읽기.  4. 재담  2명 나와서, 표정으로만 반응  과장하지 않아도 되고 잘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 끄덕이는 식  5. 공옥진표정과 춤  2명이서 공옥진 표정 1택해서 표정 짓고, 병신춤 리스트 불러주면 옆 사람과 춤 맞춰서 추기.  황미영,임정희- 표정을 계속 의심하라, 맞게 하고 있는지. 이게 무슨 표정이다라고 상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표정을. 무슨 표정인지 상상하지 말고 더 잘 할려고 해보세요. 고쳐가면서.  정양아 박하늘 최지연- 셋 다 보세요. 셋 다 다르다. 지금 하는 과정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수정해가면 되요. 가까이 서세요. 비교할수있게.  가다가 엎어지는 병신춤.(구조걸음)  정양아 구조걸음-> 황미영한테 2,3보전에 툭, 넘어지기. 정양아 - 손 안대고 최대한 천천히 쓰러지기.  황미영- 천천히 뒤로 가면서 손을 안 쓰고 몸으로 받아주기.  다른2명 체인지. 최지현,박하늘  \*아주 천천히 넘어가야 한다.  떨어질 때 무게중심을 틀어서 넘어져라. 팔뚝이 먼저 떨어지게.  2명 체인지  최지연, 임정희  2명체인지  원규리 최지현  가는 속도에 맞춰서 다리가 내려가고 무릎을 굽히면 된다.  엉덩이에 계속 힘을 주면 다친다. 몸을 다 맞겨야 된다.  두명이 팔 맞잡고 한 사람이 쓰러지면 반동쳐줘서 세워주기.  \*내 몸을 맞겼 을 때 감각 익히기.  \*쏟아지는 사람이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잠깐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진행했다가. 받아주는 사람이 훅 빠지기  ㄴ아주 천천히가 포인트.  \*엉덩이가 빠지면 안 된다. 다리를 타고 내려가면 됩니다.  \*보기 자연스러운 것은 쏟아지는 사람에 맞춰서 몸을 잡으면서 떨어져야 한다.  받혀주는 사람은 더 멀리, 쏟아지는 사람은 원래 쏟아지는 지점  속도가 빨라진다.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당연히 가져야 하는 게 없어지면, 내가 더 챗 바퀴를 열심히 돌아야 되는 상황이랑 비슷한데.  될지는 모르겠으나, 장애에 대한 한 꼭지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 꼭지는 병신춤이 진행되는 중에 안무로 만들어진 장면처럼 한 장면이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받아주는 사람이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없게 된다는 것. 안무상의 부재지만 다른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6.병신만들기  1명씩 나와서 시선은 객석으로,  대사(나를 쳐다보지 마세요..) - 장애10단계  10단계 하다가 아니면 다시, 가장 적합한 10단계 동작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면 된다.  완성되면 걸어나오면서 마무리.  대사를 하면서 대사를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7 의상 회의  연출님-  한복 위, 아래 하얀색으로 그 위에 저지를 입을 때, 안 입을 때가 있을 것.  기장도 고민이다.  의상감독님-  한국무용 추기엔 안 이쁜 기장이다.(유관순)  연출님-  마치 한복 양아치 같았으면 좋겠다.  고민이 많다. 고쟁이 입고 밑에 운동화라던지, 기장도 다 똑같이 할 것인지  춤을 추는데 옷이 방해가 되냐 안되냐 인 거지, 한복의 선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만약 제작한다면 실크, 명주 같은 건 아니고.. 누래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유관순 스타일 한복으로 한다고 해도 기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고민이다. |
| 공지사항 | 숙제  제가 공옥진의 수제자인데요. 지금 있는 거랑/ 3분버전으로 1개가져오기 |
| 연출부 고려사항 |  |
| 해야 할 일 |  |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80901토@정릉연습실 |
| 참여인원 | 연출: 윤한솔/ 조연출: 강대영/ 무대감독: 박현지  배우: 박하늘 원규리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
| 내용요약 | 1. 춤 연습 (살풀이)  2. 춤 연습(댄스센트럴) |
| 내용 | 1. 춤 연습 (살풀이)  2. 춤 연습(댄스센트럴) |
| 공지사항 |  |
| 연출부 고려사항 |  |
| 해야 할 일 |  |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80831금@정릉연습실 |
| 참여인원 | 연출: 윤한솔/ 조연출: 강대영/ 무대감독: 박현지  배우: 박하늘 원규리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
| 내용요약 | 1.춤워크숍(김옥순선생님)  2. 살풀이 연습 (최지연배우리드)  3. 재담  4.춤 |
| 내용 | 1.춤워크숍(김옥순선생님)  2. 살풀이 연습 (최지연배우리드)  3. 재담  2명 재담 읽고, 2명은 얼굴만 사용.  2명 재담 읽고, 2명은 손만 사용 (얼굴몸다리X)    \*연출님- 팔 밖에 쓸 수 없는 것. 오로지 팔만 쓸 수 있는 것.  번역한다고 생각 할 필요 없다. 그냥 임팩트 있는 무엇만 표현하면 된다.  원규리, 정양아- 억양은 유지하되 최대한 모노톤으로.  최지연, 버스 부상자 없이 다 죽은 것 해보세요. 6시내고향 감각으로. 말은 모노톤으로.  \*다시 원래 하던데로. 템포 땡겨서.  \*재담 (버스이야기부분)  --\*2인1조 3팀에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도하고  중간에 다 같이 한번 웃는다. 템포 빨리.  역할 체인지 해서. 또 하고, 돌림노래처럼 한 팀씩 추가.  웃을 땐 다 같이 웃는다. 마지막엔 웃지 않고 끝.  4. 춤  4-1 승무  4-2승무와 병신춤 추다가 다 병신춤으로 바뀌면 신나는 노래GO  그런 뒤 그 노래에 맞춰 병신춤. |
| 공지사항 |  |
| 연출부 고려사항 |  |
| 해야 할 일 |  |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80830목@정릉연습실 |
| 참여인원 | 연출: 윤한솔/ 조연출: 강대영  배우: 박하늘 원규리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
| 내용요약 | 1. 감수성워크숍(턱 없는 연극)  2. 만담  3. 승무, 살풀이 연습  4. 댄스센트럴 춤 연습 |
| 내용 | 1. 감수성워크숍 리뷰(턱 없는 연극)  \*서울연극센터- 연극인교육프로그램 감수성워크숍(턱 없는 연극)  정양아  관객 클레임이 워낙 많으니까, 얼마 전에 공연을 봤는데 소리가 나서 보니까, 옆 사람이 장애인에게 설명해주는 소리였던 것.  이해는 하는데 이것이 어디까지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박하늘  안내 멘트들이 나오는데, 공연 스타일별로 안내가 다르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자막 수화 대본 등 사전에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다는데 사전에 좀 안내들이 있다면 조금은 원할 하지 않을까.  원규리  하지만 열악한 상황의 극장이 있는데 우리는 안돼요 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차별일 텐데.  박하늘  대학로에 있는 극장들 다 갈아엎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다 인지하고 있다.  원규리  그런 쪽에 돈을 쓰지는 않을 것 같다.  임정희  혹여 장애인의 날로 오픈 한다 해도 평일 낮 이런 시간일 것이다.  박하늘  장애인택시도 언제 올지 모르기에 시간약속을 할 수가 없다.  임정희  장애인한테 제일 편리한 것은 지하철이고 그나마도 수도권에 사는 사람한테만 해당하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훨씬 불편하다.  박하늘  공부를 해서 그나마 조금 알았지,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다.  원규리  우리는 우리 자체인데,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꿈꾸는 것 처럼 사회에서 이미지를 만들어왔다. 그것에 대한 불만이 많다.  근데 그러기엔 장애인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만이 많은 것 같다.  정양아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없기에 그렇지 않은가.  정양아  영화관 커플석만 치워두 되지 않나.  연출님-  지금 하는 모든 얘기는 비용의 문제이다. 어느 누구도 그 비용을 쓰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외면하는 것이다.  임정희  바닷가 작은 배에서 남자들은 뛰어서 넘어가는데, 어릴 땐 안아서 넘겨주고,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장애인이 싫다고 하면 어떡해. 장애인이 갈 수 있게 다리를 놔주고 경사로를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정양아  계단과 경사로가 같이 있으면 장애인 생각에 비장애인도 경사로가 더 편한가? 라고 생각.  연출님  그냥 거기를 안 다녀야 맞는 거다. 상식 선에 이해가 안된다.  박하늘  난 급하니까 먼저 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연출님-  계단보다 경사로가 편하니까 시간과 비용의 문제고, 다 비용의 문제다.  의식이 바뀔 수 있게 가시적인 정책들이 생겨야 한다.  박하늘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워크샵이 있으면 좋겠다.  연출님  배우로서 그것이 궁극의 목표 인 사람이 얼마나 될까?  박하늘  장애인 역할을 맡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든 생각은..  황미영  어느 장소든 장애인이 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  임정희  비장애인은 알아서 하는데 장애인은 다 해줘야 하나.  황미영  지하철 공익들도 도와주면서 표정 안 좋다.  연출님-  애를 키우지만 애가 뛰어다니고 시끄러운 식당은 싫다. 이런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공공영역에서는 차별을 없앨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서 해가야 한다.  박하늘  그럼 관단체에서 장애인전형을 넣어야 하나?  연출님-  그 전형은 뽑겠다는 건데 비장애인과 똑같은 권리를 누려야 하는 건데 그게 아직은 쉽지 않다.  박하늘  비장애인과 비장애인만 뽑을 것이라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어 왔다.  연출님-  비 올 때 휠체어를 봤는데, 한 손으로 우산을 들고 휠체어를 밀고, 그런 생각이 스치듯 들었다.  임정희  트윗에서 지하철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사람을 봤는데 이 비를 맞닥 들이기까지 상상 됬고 앞으로 집까지 가는 것을 생각하니 조금 그랬다.  박하늘  대학로에서 휠체어 그네를 봤다.  연출님  다른 얘기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 고만고만하다. 왜냐면 아무도 그 비용을 쓰고 싶지 않은 것.  박하늘  워크샵도 비장애인들이 장애인한테 교육을 해주는 것이 좀 그렇다.  연출님-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나?  정양아  이제 고민해봐야겠죠 하는 식이였다.  황미영  근데 너무 힘들지 않을까?  연출님-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면 효율이 낮고 그런데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  원규리  뇌병변 사람이 임용고시에 붙어서 특수학교에 교사가 되었는데 근데 특수한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며 어떻게 책임지고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임정희  친구가 특수학교 교사인데 덩치도 좋은데 벅차는 게 있다.  2. 만담  2-1  2명은 만담은 읽고, 2명은 옆에서 표정으로만, 읽고 있는 만담표현.  (일종의 장애)  \*연출님  표정이 모든 것을 표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떤 것을 표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2-2  원래 만담스타일.  한 편안에 있는 한 꼭지들, 2명씩 짝을 지어서 원래 만담스타일로.  2-3  영감님 대가리~(노래 나오는 만담) 2명이서 만담 진행  나머지는 뒤에서 합창단처럼 노래부분 같이 하기.  3. 승무, 살풀이 연습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몇 명이 쓰일지는 모르나 승무 살풀이 쓰일 예정  4. 댄스센트럴 춤 연습  \*제일 어려운 버전으로 3곡 연습..  \*\*  연출님  살풀이, 승무 할 때와 댄스센트럴 할 때 다른 점 체감하는 것이 있나, 한국무용과 댄스의 몸이 체감하는 다른 점?  원규리  호흡이 다르다. 승무와 살풀이는 업비트가 없다.  연출님  춤이 요구하는 몸이 어떤 것이냐, 어떻게 다르냐는 것이 궁금하다. 왜 재미없나 승무의 몸은?  임정희  승무는 틀렸다고 하면 내가 무엇을 틀렸는지 모른다. 하지만 댄스는 틀렸다고 하면 알 것 같지만, 선이 어렵다.  연출님  이 춤에 대해 무식해서 그렇다. 잘 알지 못하기에.  거기에 따른 몸에 반응이 다른 것.  원규리  박자가 느껴지면 들썩들썩하는데 한국무용은 하지 말라고 하니 어렵다.  황미영  많이 안 춰봐서 그런 것 아닌가.  임정희  디테일 하게 잡는 댄스선생님 오면 똑같았을 것이다.  연출님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각적으로 알 수 없는 상태다. 어느 춤을 봤을 때 감각적으로 경지의 수준은 알 수 있는데 한국무용은 그것조차 안 되는 것 아닌가?  정양아.  전통이란게 얼마나 접했냐의 차이인 듯 하다.  박하늘  좌우의 바뀜이 딱 떨어지는데 한국무용은 약간의 곡선, 각도 애매한 동작들이 많다.  정양아  예를 들어 재즈댄스와는 다르게, 몸 쓰는 법이 다르다.  박하늘  어느 발이 먼저 나가냐도 다르고, 어렵다.  황미영  박자의 길이가 동작에 따라 또 다르다  박하늘  5살때부터 한국무용 했으면 이러지 않았을 듯.  원규리  실제로 어릴 때부터 전통공연을 하면 댄스를 잘 못한다.  정양아  하면서도 잘 모르겠다.  연출님  지금까지 얘기들을 정리하면.  첫째 익숙하지 않고 무식해서  둘째 가르치는 사람이 지나치게 똑똑해서.  인데,  임정희  똑똑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정양아  발레를 하다가 한국무용으로 갈아타는 사람도 많다.  최지연  발레가 더 숙련기간이 긴 듯.  접하는 기회를 보면 발레가 더 많이 보나.  임정희  발레가 좀더 접할 기회가 많은 듯.  최지연  비슷하지 않은가 싶다.  임정희  취미발레를 하는 사람이 꽤 많다.  최지연  요가 하듯이 태 때문에 하는 사람이 많긴 하다.  원규리  발레 필라테스도 있다.  임정희  애기들도 발레를 피아노 시키듯 시킨다. 한국무용은 그렇지 않다.  연출님-  왜 그런가?  최지연  체형 때문에 그런 듯. 발레는 체형이 좋아진다는 말이 있다.  정양아 황미영  전통은 한번 하면 쭉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있다.  박하늘  장단시디 조차 쉬쉬하는 것 보면 보편화 시키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원규리  중고등학교에서 국악기 많이 하지 않나?  연출님-  정부 무용단체중 발레단체는 한국무용 단체의 약10%밖에 안 된다.  정양아  초등학교때만 해도 부채춤도 추고 했었다.  연출님-  살풀이든 승무든 결국엔 이 절제를 통해서 밀도를 높이는 문제인데, 이런춤이 가지고 있는 밀도와는 다른 밀도가 필요한 것 발산이 아닌 안으로 응축하는 그런 느낌.  밀도를 만들어 내는 것은 단순히 수련의 문제는 아니다. 감각의 문제다.  밀도는 정서적 문제다. 쉽게 얘기해 팔을 뻗을 때 밀도가 생기는 건 각 정서의 문제다. 근육의 문제가 아닌. 몸에 대한 질문은 결국 그 정서를 거부하는 문제.  어려워서든 익숙하지 않아서든 몸이 거부하니 그 밀도가 안 생기는 것. 정서적으로 거부하는 것.  최지현  살풀이 같은 경우 천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천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에 따라 춤이 달라질 수 있는 건가?  연출님  의미의 문제가 아니다. 정서의 문제다. 손을 뻗을 때 내가 느끼는 것과 보는 사람이 느끼는 것이 다르지 않나. 감각적으로 어려운 거다. 밀도가 안 생기니.  조금 산만하긴 하지만 결국엔 한국무용이라고 했을 때 그 전통을 수용,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 괴리를 머리가 아닌 몸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  근데 너무 무지한 게 문제라면 무지하지 않게 몸이든 머리든 끌어올려야 하는 것.    임정희  다른 나라도 자기나라 문화를 어렵게 느끼나?  박하늘  전통은 너무 모셔야 할 것 같은 느낌.  임정희  다른 나라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을 것 같긴 하다.  황미영  보편화 시키지 않아서 그런 듯.  연출님  그런 얘기를 공연에서 하자는 것은 아니다. 단순하다  왜 몸이 거부하는지. 어디서 전통을 못 받아들이는지.  정양아  댄싱나인도 한국무용을 하는 사람은 없고 테크닉부분을 중요시한다.  임정희  테크닉도 중요한 것 같다. 스킬이 필요한 것을 보면 무지한사람이 보면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나. 한국무용은 그런 게 없는 듯?  연출님-  아니다 몰라서 그렇지 엄청 많다.  재미없다는 것은, 한국무용으로 공연을 하는데도 연습 외에 그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한국무용. 그만큼 흥미가 없는 것이 한국무용.  임정희  발전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면 게으르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 시도들이 없다. 발전이 없어 재미가 없다.  박하늘  발전 시키는 게 좋을지 고유성을 지키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다.  임정희  고유성을 지키기보단 하던 데로 하려는 관습처럼 느껴진다.  원규리  실제 한국무용 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신 무용을 섞어서 많이 한다.  전통 쪽 사람들의 문제인 것 같다.  정양아  일본전통무용도 하면 사람들이 엄청 많다.  보통 감정을 잘 모르고 배우는데 일본에서 알려주면 먼저 어떤 내용인지 알려준다.  한국무용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저기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알려주니 재미가 없나 하는 생각도 든다.  배척이나 배제가 별로 없는 게 오래되거나 잘 하는 사람은 일본을 데려가 공연을 시킨다.  연출님  아니다 한국무용이 그런 식은 훨씬 많다.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한국무용이 공연 횟수가 제일 많다.  임정희  그리고 춤의 맞고 틀리고의 정상 범위가 좁은 듯 하다.  연출님  한국무용의 문제가 아닌 발레도 똑 같은 건데 그것을 누가 정한 건가. |
| 공지사항 | 일주일 동안 살풀이 마스터하기. |
| 연출부 고려사항 |  |
| 해야 할 일 |  |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80829수@정릉연습실 |
| 참여인원 | 연출: 윤한솔/ 조연출: 강대영  배우: 박하늘 원규리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스텝: 조유림PD 송혜현AD |
| 내용요약 | 1. 춤워크숍(김옥순선생님)  2. 즉흥 장면구성 연습 |
| 내용 | 1. 춤워크숍(김옥순선생님)  2. 즉흥 장면구성 연습  \*정서적인 사이 찾기.  \*어떤 선택을 한다면 그 선택의 끝까지 가야 한다.  마지막 극단적인 상태까지, 몸과 마음이.  2-1  1병신만들기  2상대방에게 최대한 가까이 가서 대사(날 쳐다 보지 마세요)-  3병신 춤 (상대방은 춤을 다 출 때까지 최소- 외면한다거나 최대-춤을 추거나 등등 어떤 선택을 결정)  원규리 춤을 못 추게 하는 결정. 끌어안음.  정양아 상대방을 외면하다가 춤을 따라 하는 결정.  박하늘 같이 춤,  황미영 눈과 귀를 막음  최지연 같이 함, \*동작을 권해서 같이하게 됐으면 같이 하는 마지막은 무엇인가? 극한까지!  임정희 슬픔폭발  최지현 같이 함, 그러나 똑같지 않은 나의 모습 탓.  흥이라는 정서라면 흥의 끝은 무엇인가?  2-2  순서정해서 Edm음악에 병신춤 추기  ex- 1357 멈추고 나머지 춤, |
| 공지사항 |  |
| 연출부 고려사항 |  |
| 해야 할 일 |  |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80828화@정릉연습실 |
| 참여인원 | 연출: 윤한솔/ 조연출: 강대영  배우: 박하늘 원규리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
| 내용요약 | 1. 승무, 살풀이 리뷰  2. 소설.,재담 발표.  3. 즉흥 장면구성 연습 |
| 내용 | 1. 승무, 살풀이 연습  2. 소설.,재담 발표.  박하늘  재담: “만주의 달밤”, “영감님 대가리는~♪”  소설: 춤은 몸으로 추는게 아니랑께 중  도둑년 취급 받아 야마모토에게 팔려간 얘기  내용ㅡ 최승희 선생님 밑에 있다가 도둑년으로 오해를 받아 쫓겨난 이야기. 야마모토 선생님께 가게 된 이야기.  제자들한테 받은 돈인데 그것을 도둑질했다고 오해해서 내쫓은, 근데 야마모토 선생님이 다시 사간 그런 이야기.  이유ㅡ 다른 책에 없는 내용, 도둑년으로 오해 받고, 최승희 선생님께 팔렸는데 또 야먀모토한테 또 팔리고 비극적인 이야기가 와 닿아서.  원규리  재담 제3과장 영노탈  소설  1내용 병신놀이패가 와서 놀이패가 하는 재담이랑 놀이마당을 일하는 친구랑 보러 나갔다가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빠져 나왔다는 내용을 고름  이유 병신춤을 탈 없이 해야겠다. 병신춤을 추게 된 계기 같아서.  2설욱도 간 얘기,  이유 설욱도 사람들이 왜 울었는지 궁굼해서.  정양아  재담. 염불타령  소설. 최승희 몰래 춤 연습 하다가 들킨 이야기  내용 최승희네 2층 무용실에서 몰래 춤을 추다 들킨 이야기.  '지금 누구 흉내 내는 것이냐, 그래 너 한번 춰봐라' ,네' ,'춤을 흉내  낼 뿐 예술을 하는 것이 아니다, 각설이 춤이나 춰라' '진짜 춤 배우고 싶냐?'하지만 한번도 가르쳐주지 않음.  이유 어렸을 때부터 춤이라는 것, 최승희가 없을 때 춤추는 조선인들한테 춤은 어떻게 추는 것이냐 질문도 하고 그럴 땐 신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 하지만 그 앞 전에서 공옥진은 병신 춤을 췄고, 공옥진 왈 곱사들도 신명이 있지 않냐 라고 말한 것이 재미있게 느껴졌다.  최지현  재담: 장대장타령 or 장님소리  소설: 병신춤을 춥시다 중 - 공옥진 노래와 춤에 빠져 친정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연속에서 노래하는 장면 or 공옥진,아버지랑 헤어지는 얘기  1.내용과 이유 김준철씨와 결혼해 여름에 결혼하고 그 해 여름에 소리하는 친구를 찾아가서 춤과 노래를 하고 싶은 마음에 찾아갔는데 시댁에서 우리 집에 소리꾼은 없다라고 했다. 하지만 너무 하고 싶어서 친구네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목에 자연과 어우러져 노래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인상 깊어서 골랐다.  2. 공옥진과 아버지가 헤어지는 장면.  임정희  재담 제목 엉터리씨의 엉터리이야기 (집값100원)  소설 남인수 러브러브  내용 놀이패 따라다닐 때, 공옥진을 만나서 연모의 정이 생기고 단원들과 단장이 공옥진을 남인수의 방에 넣어주고, 공옥진은 나쁘지 않았었다. 공옥진과 남인수는 공연을 째고 촛불을 켰다. 그 날 밤 같이 보내고 남인수 왈 그렇게 약속하지 만나지 말고 만나자. 그런 뒤 남인수는 떠났다. 둘은 각자 공연을 다니고, 우연 속에 몇 번을 다시 만나고. 하지만 기약 없는 만남에 지쳐갔고.. 시간이 흘러 남인수는 사망했다.  이유 남인수가 워낙 유명하고, 사랑이야기가 거짓말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주변 증인이 많다는게 흥미로워 이 이야기를 꼽았다.  황미영  재담 : 콜롬비아 레코드-꼴불견  소설 : 앉은뱅이 곱사에게 돈 주고 춤 춰보라하는 장면  내용 병신춤을 연구하면서 어느 날 목포에 갔다가, 곱사쟁이한테 돈 만원을 쥐어주고 이 돈 받고 춤을 춰봐라 춤을 출 수 있냐 라고 하고. 싸우다 결국 병신춤을 추게 됬는데. 자기는 춤을 한번도 춰 본적이 없다.  만원이 생겼으니 신바람 나는 일이 아닌가? 그걸로 춤을 추고 그것을 연구하고. 이유 위에 내용이 재미있다고 생각되어 고르게 되었다.  최지연  \*재담  1.딸라바꿔요~  2.백발은 첩이 뽑고 흑발은 처가 뽑아(재1000 p46)  \*소설(조해인 저)  1.김연수한테 병신춤 추다 혼난 얘기+자살남 살린얘기(p110~115)  2.병신들 옥진관에 불러다 잔치한 얘기(p130~136)  3.심청+병신춤 공연 후 쓰러져 공연실패+병신들에게 몰매 맞은 후 불갑산 저수지 자살사건(p145~148)  내용  1김연수한테 병신춤을 추다가, 혼났다는 얘기. 혼나고 나왔는데 자살하려고 하는 남자는 살린 얘기.  2. 병신들 옥진관에 불러 잔치 한 얘기.  3. 심청+병신춤 공연 후 쓰러져 공연실패+병신들에게 몰매 맞은 후 불갑산 저수지 자살 하려다가 살아난 얘기.  연출님 - '병신춤을 춥시다'가 팩트에 가장 가깝지 않나.  공옥진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지점에 어떻게 들어가야 하나.  공옥진의 이야기가 필요한가도 고민이다. 병신 춤이라는 것을 이해,관객입장에서 접근 하는데 필요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다.  한편으로는 초기엔, 병신춤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야기할려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그냥 우리의 춤을 보고 그 감흥이 생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이다.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일상에서 소름 돋는 어느 순간 경험할 때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그 지경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 어떻게 해야 그게 만들어질지는 숙제이지만. 소름 돋는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시간에 갑자기 그런게 소름돋는게 아닌가.  이럴거란 예상을 맞지 않거나 그것이 긍정적인 감흥 일 때 소름이 돋고 그런 것 말이다.  임정희 공옥진의 인생사가 위에 내용에 영향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연출님- 도입을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그 외에는 불리 할 수도.  박하늘 설명, 한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정도?  임정희 그냥 옛날에 사람의 얘깃거리? 인생사?정도라고 생각.  연출님- 이런 요소를 판단해야, 대사 영상들을 진행 할 수 있기 때문. 그리고 이런 얘기를 통해 새로운 에피소드가 있을까 해서 이런걸 해봤다, 자기 신화화하는 얘기들을 했는데 공연 중에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본인이 하게 되는 심청전에 도입부가 되는 것  에피소드를 무대에 올리게 된다면 신화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예술가들이 어떻게 신화화를 하는지. 그걸 통해서 이야기  하는 것,  오늘 골라온 장면들은 살짝 뻔한, 예측 가능한 이야기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인상 깊은 장면이구나 라고 생각. 그다지 삶에 있어서 그다지 파격적인 인생은 없구나. 라고 생각된다.  3. 3~4인 창작안무발표 & 즉흥 장면구성 연습  3-1 정양아 박하늘 최지현  연출님- 방금 했던 안무 제일 앞에10단계만들었던 것 앞에 붙인다.  그 단계가 명확하게 보이게 해달라.(아주 느리게)  임정희 황미영 최지연 원규리  연출님- 몸의 텐션 최고치로 부탁한다.  3-2 2번째팀 안무로, 다 같이 하는 안무 창작, 단 등 퇴장이 있어야 한다.  3-3 병신춤을 최대한 작게, 크게, 느리게, 빠르게 하여 들여다보기  10까지 있다면 공옥진선생님이 5라고 생각.  한사람씩 시작 첫 사람은 최대한 작게, 마지막 사람은 최대한 크게.  작으면 정서적 밀도가 더 높아야 함. 몸이 커지면 정서적 밀도는 상대적으로 좀더 작아지고. 그럴려면 동작이 작을 때 몸의 밀도가 훨씬 높아야 된다.  동작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잘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상대방의 동작을 보고 시각적으로 임펙트 있는 것을 따와서 그런 것이다. 다 제각각이다.  다음은  최대한 느리게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연출님- 김설진 영상을 다시 봤는데, 표정들을 다시 들여다 봐야 할 것 같다. 공옥진의 표정.  표정이 만들어내는 춤의 뉘앙스들이 그 표정을 의도적으로 갖고 오든 안 쓰더라고 연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다.  병신춤과 표정이 멀리 있는 것 같지 않다.  순서정해서 edm음악에 병신춤 추기  ex- 1357 멈추고 나머지 춤,  신날 수 없는 춤인데,  날 쳐다보지 마세요대사의 느낌이 이렇게 신나는 음악을 출 때도 그런게 있어야 한다.  박하늘- 표정도 중요한 듯 하다  연출님- 얼굴로만 보여 줄려고 하기 때문에, 본질에 가깝에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 그래서 최대한 늦게  하려고 했다.  공옥진의 병신춤이 정말 병신 되기라면 몸으로 어떻게 구체화 될 수 있냐의 문제이다. 공옥진의 병신춤보다 더 병신 같고자 하는 것. 병신을 희화화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생각. 모양새를 흉내 내는 것 그 이상, 그것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다. |
| 공지사항 | 소설 하나씩 더 찾아보기. |
| 연출부 고려사항 |  |
| 해야 할 일 |  |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80827월@정릉연습실 |
| 참여인원 | 연출: 윤한솔/ 조연출: 강대영  배우: 박하늘 원규리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
| 내용요약 | 1. 춤워크숍(김옥순선생님)  2. 살풀이 연습 |
| 내용 | 1. 춤워크숍(김옥순선생님)  1-1승무  2. 살풀이 연습 |
| 공지사항 |  |
| 연출부 고려사항 |  |
| 해야 할 일 |  |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80825토@정릉연습실 |
| 참여인원 | 연출: 윤한솔/ 조연출: 강대영  배우: 박하늘 원규리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
| 내용요약 | 1. 승무, 살풀이 연습  2. 춤워크숍(김옥순선생님) |
| 내용 | 1. 승무, 살풀이 연습  2. 춤워크숍(김옥순선생님)  2-1 승무 |
| 공지사항 |  |
| 연출부 고려사항 |  |
| 해야 할 일 |  |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80824금@정릉연습실 |
| 참여인원 | 연출: 윤한솔/ 조연출: 강대영  배우: 박하늘 원규리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
| 내용요약 | 1. 승무, 살풀이 연습  2. 즉흥 장면구성 연습 |
| 내용 | 1. 승무, 살풀이 연습  살풀이는 박자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듯하다. 그냥 추는 사람의 느낌의 '덩'에 끝내는 것 같다.  2. 즉흥 장면구성 연습  2-1장애만들기 시작동작 포즈.  김윤진선생님과 했던 병신춤 시작동작 포즈. 두 줄로 마주 보면서 한명씩 관찰, 몸의 상 태, 팔 등 자세히 관찰하기.  -각자 만드는 장애인의 몸의 형태.  ㄴ 편한 상태를 0이라고 하면 방금 했던 장애 만들기 시작포즈가 10이고, 그 중간의 8개의 중간 단계 만들기.  \*장애가 만들어지는 단계 0~10단계. 0=비장애 10=장애마지막  \*단계단계마다 동작 다르게. 8단계.(ex다리굽히고, 허리 젖히고, 팔 위로 붙이고, 모으고, 목뒤로, 표정, 자세, 호흡 등 순서.)  -앞사람 장애 10단계 따라 하기.  ※장애만들기 기본으로 시작, 그 다음은 아주 느리게 한다, 장애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더 느리게. 내 몸이 변하게 되는 어떤 시간, 그 길이를 상상하고 해야 한다. 내가 장애가 있지는 않지만 정상에서 장애까지 가는 멈(멀음)을 생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떤 거리를 장애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시간으로 대체해봐라.  장애와 비장애가 멀다는 것을, 멈의 시간으로 표현하는 것.  2-2나를 쳐다보지 마세요 대사 외기  나를 쳐다보지 마세요  난 이제 춤을 출거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할 거 에요.  아마도 공연이 끝나고 극장을 나갈 때까지 눈물은 멈추지 않겠죠.  그래도 괜찮으면 나를 보세요.  ※전체공연에 어떻게 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애를 이야기 하는 것 어느 정도 직접적이고 간접적일지는 모르겠으나 병신춤을 추게 되면 먼 병신춤 안에 장애에 대한 재연이 있는 거다. 그것을 어떻게 풀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지금 고민은 장애와 비장애에 대한 거리의 감각을 갖는 것인 것 같다. 그 거리는 공간적 거리가 아닌 시간적 거리로 환산되어 표현되어야 할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이자 느낌이 있다.  2-3느리게 하고 다 되면 그 상태로 세 걸음을 걷고 '나를 쳐다보지 마세요' 대사.  -생각했던 것 보다 너무 자극적이다.  ※장애와 비장애의 거리가 시간으로 환산되는 감각이 생겨야 한다. 얼마나 먼지~  2-4 다 같이 일렬로 선 다음 장애10단계 후 걷고-> 대사 나레이션-> [bg. 클럽노래] 노래에 맞춰 그냥 그 자세로 춤.  2-5원으로 서서 마지막 자세 병신춤 파도타기.  총 10단계 중 한 단계만 아주 빠르게, 그리고 빠르게 한 다음에 오는 동작은 끝에 악센트가 들어가게. 나머지는 똑같이. |
| 공지사항 |  |
| 연출부 고려사항 |  |
| 해야 할 일 |  |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80823목@정릉연습실 |
| 참여인원 | 연출: 윤한솔/ 조연출: 강대영  배우: 박하늘 원규리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
| 내용요약 | 1. 춤워크숍(김옥순선생님)  2. 병신춤 움직임과 박자 통일하기  3. 장면 만들기 |
| 내용 | 1. 춤워크숍(김옥순선생님)  2. 병신춤 움직임과 박자 통일하기  연출님- 병신춤 동작들 맞추기. 각도 팔등 다  공옥진 춤이랑은 조금 다르더라도 군무가 되었을 때 병신춤이 다 똑같아야한다.  3.. 장면 만들기  3-1 그룹화 혹은 단일화 해서 빠르고 느리게  3-2누군가는 댄스센트럴을 하고 있고, 다른그룹은 병신춤을 추고, 어떤 사람은 '저는000인데요, 사실 제가 공옥진의 수제잔데요. ㅡ' |
| 공지사항 |  |
| 연출부 고려사항 |  |
| 해야 할 일 |  |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80822수@장안동 유니크스튜디오 |
| 참여인원 | 연출: 윤한솔/ 조연출: 강대영  배우: 박하늘 원규리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스텝: 조유림PD, 송혜현AD |
| 내용요약 | 1. 프로필 촬영 |
| 내용 | 1. 프로필 촬영  -유니크 스튜디오.  개인프로필촬영, 컨셉촬영, 영상촬영 진행. |
| 공지사항 |  |
| 연출부 고려사항 |  |
| 해야 할 일 |  |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80821화@정릉연습실 |
| 참여인원 | 연출: 윤한솔/ 조연출: 강대영  배우: 박하늘 원규리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스텝: 조유림PD, 송혜현AD |
| 내용요약 | 1. 재담 영상시청  2. 춤워크숍(김옥순선생님)  3. 병신춤 움직임과 박자 통일하기 |
| 내용 | 1. 재담 영상시청  -장소팔,고춘자 등  2. 춤워크숍(김옥순선생님)  3. 병신춤 움직임과 박자 통일하기. |
| 공지사항 |  |
| 연출부 고려사항 |  |
| 해야 할 일 |  |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80820월@정릉연습실 |
| 참여인원 | 연출: 윤한솔/ 조연출: 강대영/ 무대감독: 박현지  배우: 박하늘 원규리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
| 내용요약 | 1. 병신춤 움직임과 박자 통일하기 |
| 내용 | 1. 병신춤 움직임과 박자 통일하기  연출님- 춤이 잘 안 맞다. 본질적으로 다르다. 왜 그 동작들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 |
| 공지사항 |  |
| 연출부 고려사항 |  |
| 해야 할 일 |  |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80819일@정릉연습실 |
| 참여인원 | 연출: 윤한솔/ 조연출: 강대영  배우: 박하늘 원규리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
| 내용요약 | 1. 놀부가(흥보가) 시청.  2. 병신춤 움직임과 박자 통일하기  3. 병신춤구성발표 |
| 내용 | 1. 놀부가(흥보가) 시청.  공옥진 공연의 판짜기, 어떻게 넘어가는지 구성되고 어떻게 넘어가는지  참고하기, 살풀이~ 자기소개(레파토리)~ 놀부전~자기소개(옛날이야기)  2. 병신춤 움직임과 박자 통일하기  팔은 어떻게 하는지, 공옥진이 표현하려는 목적을 고민하고 박자나 리듬정하기.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판소리를 혼자 혹은 모두가 같이하면 어떻고 다 같이 딱딱 군무처럼 할 수 있는가  혼자 말고 다같이 병신춤을 추면은 어떻게 변형되는가?  내가 갖고 있는 리듬감이 병신춤의 리듬이랑 맞지 않다.공옥진선생님의  리듬감을 캐치해야한다.  3. 창작 병신춤발표  공옥진선생님의 동작들을 가지고 반복성을 활용하고 동작이나 템포의 반전을 2개 이상 활용. |
| 공지사항 | 목요일까지 2인무 혹은 3인무 병신춤 창작하기 |
| 연출부 고려사항 |  |
| 해야 할 일 |  |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80818토@정릉연습실 |
| 참여인원 | 연출: 윤한솔/ 조연출: 강대영  배우: 박하늘 원규리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
| 내용요약 | 1. 병신춤 연습  2. 공옥진의 심청전 시청 |
| 내용 | 1. 병신춤 연습  2. 공옥진의 심청전 시청  공옥진 공연의 판짜기, 어떻게 넘어가는지 구성되고 어떻게 넘어가는지  참고하기, 살풀이- 심청전- |
| 공지사항 |  |
| 연출부 고려사항 |  |
| 해야 할 일 |  |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80817금@정릉연습실 |
| 참여인원 | 연출: 윤한솔/ 조연출: 강대영  배우: 박하늘 원규리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스텝: 장경숙(분장), 남혜연(분장) |
| 내용요약 | 1. 병신춤 연습  2. '공옥진수제자인데요..'  3. 재담 조사 발표.  4.촬영 관련 분장부회의. |
| 내용 | 1. 병신춤 연습    2. '제가 공옥진 수제자인데요..' 글짓기 수정된 내용 발표.  연출님- 마지막에 운전대를 잡기 전까지 더 큰 사건이 필요하다.  3. 공옥진 재담 조사 발표  연출님- 공옥진의 공연에만 있는 재담이 있다. 그게 어떻게 작품에  적용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장소팔, 고춘자, 박춘재, 신불출 이 사람들의 재담은 어떤지도 찾아보자.  4. 분장부 회의  연출님- 머리는 쪽 머리이며 공옥진과 똑같은 화장법이면 좋겠다.  배우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일 공옥진 같은 사람이 한명이 있어야 한다.  장경숙선생님- 촬영 날 다 한번씩 해보고 제일 공옥진 같은 사람을 정하면 될 것 같다. |
| 공지사항 | 일요일까지 1분30~2분남짓 병신춤 만들어오기, 장소팔, 고춘자, 박춘재, 신불출 재담조사하기. |
| 연출부 고려사항 | 프로필촬영(22일 수) 의상 준비. |
| 해야 할 일 |  |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80816 목@정릉연습실 |
| 참여인원 | 연출: 윤한솔/ 조연출: 강대영  배우: 박하늘 원규리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스텝: 송혜현AD |
| 내용요약 | 1. 병신춤 연습  2. 촬영 회의 |
| 내용 | 1. 병신춤 연습  2.촬영 회의  22일 컨셉, 움직임사진 동영상촬영 14~18시 촬영예정.  스튜디오 미정,.  공옥진 수제자 컨셉 고려 중. |
| 공지사항 |  |
| 연출부 고려사항 | 장경숙선생님 촬영 관련 일정체크. |
| 해야 할 일 |  |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80813월@정릉연습실 |
| 참여인원 | 연출: 윤한솔/ 조연출: 강대영  배우: 박하늘 원규리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스텝: 최보윤(조명),김소현(조명) |
| 내용요약 | 베세토연극제 극장 답사. |
| 내용 | 1. 베세토 연극제 '아시아문화전당' 극장 답사. |
| 공지사항 |  |
| 연출부 고려사항 |  |
| 해야 할 일 |  |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80812일@정릉연습실 |
| 참여인원 | 연출: 윤한솔/ 조연출: 강대영  배우: 박하늘 원규리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
| 내용요약 | 1. 병신춤 연습,  2. 춤을 추는 이유,  3. 즉흥으로 공옥진의 병신춤 구성. |
| 내용 | 1. 병신춤 연습  2. 춤을 추는 이유.  무엇이 춤을 추게 하는가. 춤 몸짓  춤이란 것은 무언가에 귀속될 수 없다. 저건 무엇을 표현한거고 이런것도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춤을 왜 추는지, 더 본질적으로 들여다봐야하지 않을까. 무언가 표현하려고,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춤은 그냥 춤이다. .  그렇다면 병신춤을 잘 춘다는 것은 무엇이냐. 행위자가 잘 추는 것을 느낄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태초에 뭘 표현하려고 한 것은 아닐꺼다. 그냥 춤을 춘것이다.  병신같지 않은게 문제인가, 진짜 병신 같은게 문제인가.  춤에 대한 질문.  병신은 병신춤을 출 수 없다.  이런고민들이 어떤 춤을 출지, 그리고 춤을 추면서 그 밑바탕이 되는 개념이 잡힐 것 이다.  3. 즉흥으로 공옥진의 병신춤 구성  눈 가리고 전통가락이 아닌 가요에 맞춰 즉흥 병신춤 추기. |
| 공지사항 | 재담들 들여다보기.(웃긴얘기들 하는 것들) 목요일날 1개씩 골라오기. |
| 연출부 고려사항 |  |
| 해야 할 일 |  |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80811토@정릉연습실 |
| 참여인원 | 연출: 윤한솔/ 조연출: 강대영  배우: 박하늘 원규리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
| 내용요약 | 1. 병신춤 연습  2. 병신춤의 호흡 찾기.  3. 댄스센트럴2 안무노래 선곡 |
| 내용 | 1. 병신춤 연습  2.병신춤의 호흡 찾기.  턴을 계속 돌다가 어지러운 상태에서 병신춤 춰보기.  3. 댄스센트럴2 안무노래 선곡  "Grenade" by Bruno Mars  "Like A G6" by Far East Movement ft. DEV & The Cataracs  "Run (I'm A Natural Disaster)" by Gnarls Barkley  "Toxic?(C)" by Brittney Spears  "Satellite" by Lena  "Rude Boy" by Rihanna  "Hot Stuff" by Donna Summer |
| 공지사항 |  |
| 연출부 고려사항 |  |
| 해야 할 일 |  |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80810금@정릉연습실 |
| 참여인원 | 연출: 윤한솔/ 조연출: 강대영  배우: 박하늘 원규리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
| 내용요약 | 1. 공옥진 병신춤, 살풀이, 옹헤야, 장단 복습  2. 댄스센트럴3 안무노래 선곡 |
| 내용 | 1.공옥진병신춤, 살풀이, 옹헤야, 장단 복습  연출님- 공옥진의 재밌는 호흡이 있다.  본인도 웃음을 참지 못하는 , 웃음을 참는. 호흡. 그런 것들을 캐치해야한다.  2. 댄스센트럴3 안무노래 선곡.  "Samba De Janeiro" Bellini  "Calabria 2008" Enur ft. Natasja  "On The Floor" Jennifer Lopez ft. Pitbull  "Electric Boogie" Marcia Griffiths  "Everybody (Backstreet's Back)" Backstreet Boys  "Moves Like Jagger" Maroon 5 ft. Christina Aguilera  "Ching-A-Ling" Missy Elliott |
| 공지사항 |  |
| 연출부 고려사항 |  |
| 해야 할 일 |  |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80809목@삼일로창고극장 |
| 참여인원 | 연출: 윤한솔/ 조연출: 강대영  배우: 박하늘 원규리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스텝: 김민승, 조유림, 송혜현 |
| 내용요약 | 1. 남산주최 성폭력예방 교육  2. 전통춤속 정중동에 대해, '제가 공옥진 수제인데요.' |
| 내용 | 1. 남산주최 성폭력예방 교육  2. 전통춤 속 정중동에 대해, '제가 공옥진 수제인데요.'  정중동<->동중정  전통춤, 계보 없는 공옥진이 일종의 전통에 대한 도발이다. 어느 지점에서 도발이 가능한지, 어떤 태도로 구현되어야 하는가. 그것이 진정성, 기만함 같은 것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보는 사람, 추는 사람이 재미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전통의 가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 다른 시점으로 바라 보아야 한다.  '제가 공옥진 수제자인데요.'  공옥진 수제자 이야기로 대본화 작업을 할 예정이다.  그러기 위해선 에피소드가 더 필요하다. (사건, 일화) |
| 공지사항 |  |
| 연출부 고려사항 |  |
| 해야 할 일 |  |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80808수@정릉연습실 |
| 참여인원 | 연출: 윤한솔/ 조연출: 강대영  배우: 박하늘 원규리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
| 내용요약 | 1. 공옥진 드라마 대본 읽기.  2. 병신춤 이름 지어서 세분화 나누고 연습용 영상으로 편집하기. |
| 내용 | 1. 공옥진 드라마 대본 읽기.    2. 병신춤 이름 지어서 세분화 나누고 연습용 영상으로 편집하기. |
| 공지사항 |  |
| 연출부 고려사항 |  |
| 해야 할 일 |  |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80807화@정릉연습실 |
| 참여인원 | 연출: 윤한솔/ 조연출: 강대영  배우: 박하늘 원규리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스텝: 윤민철, 민경현, 장경숙 |
| 내용요약 | 1. 스텝회의  2. '제가 공옥진 수제자인데요..' 글짓기 발표. |
| 내용 | 1. 스텝회의  분장- 단순한 분장이 아닌 변장정도로 일종의 퍼포먼스 였으면 한다.  ex) 한배우가 시간을 거쳐 공옥진화가 되는,  그러기 위해선 분장사도 무대 위에 출연할 수 있다.  영상- '공옥진'캐릭터가 있어야 하고 인식반경이 그렇게 넓지 않다 그래서  미술, 분장 다 되면 조명이 인식이 되고 그 다음 어떤 공간을 써야 할지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일정 데드라인 정리하여 조연출에게 전달.  음악- 작은 북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면 자바라도 좋다.  병신춤을 출 수 있는 EDM이 필요하다.  (춤 출 수 있는 가이드 음악필요)  2. '제가 공옥진 수제자인데요..' 글짓기 발표.  취합해서 드라마터그님께 전달. |
| 공지사항 | 병신춤 추는 꼭지들 따기, 병신춤을 구상해야 한다. |
| 연출부 고려사항 |  |
| 해야 할 일 |  |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80806월@정릉연습실 |
| 참여인원 | 연출: 윤한솔/ 조연출: 강대영  배우: 박하늘 원규리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스텝: 조유림 |
| 내용요약 | 인터뷰 내용 공유 및 토론, 대본 읽기. |
| 내용 | 1. 인터뷰 내용 공유 및 토론  1-1 (원규리 임정희)  김유남 26세 연극 뮤지컬배우, 예원예대 코미디전공  생각했던 장애인의 이미지 피해의식이 전혀 없었다.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  차별을 당해본 적이 있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차별을 당한다. 그것처럼 나는 장애 때문에 차별을 당할 뿐이다.  불편한 점?- 물리적인 것, 키가 안돼서 손이 안 닫거나. 하지만 사다리를 두거나 하면 되기에 괜찮다.  계속 수술을 해야 한다. 외소증 때문에, 관절이 좋지 않다.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계속 수술을 함.  장애전시회라고 느낄 수 있는데 괜찮나?- 써먹을 수 있으면 계속 써 먹어야 한다.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다.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아버지는 안 계시다. 기억이 없다. 내 인생에서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함. 어머니는 외소증이다.  본인 스스로 약자위치라고 전혀 생각지 않음. 외소증 모임이 있는데,자기 윗 세대는 본인 같은 케이스가 별로 없는데, 아랫 세대는  제법 있다, 긍정적인 사람들.  병신춤에 대해 물어봐도, 별로 관심이 없다.  1-2 (정양아, 최지연)    1-3(박하늘, 최지현, 황미영)  극단 애인 김지수대표, 강예슬 연출, 강보람 배우 |
| 공지사항 | '저는 000이구요, 사실 저는 공옥진의 수제자인데요..운전을 하고 가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경부고속도로였고 어느새 나는 공선생의 집 앞에 있었습니다 혹은 눈을 떠보니 공옥진의 생가였다.' 똑같지 않고 비슷하면 됩니다. 내 이야기여야한다.. |
| 연출부 고려사항 | 스텝회의, 광주답사 일정, 남은 일정 회의. |
| 해야 할 일 | 영상들 병신춤만 편집. |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80802목@정릉연습실 |
| 참여인원 | 연출: 윤한솔/ 조연출: 강대영  배우: 박하늘 원규리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
| 내용요약 | 연표만들기, 춤 배웠던 것 연습 |
| 내용 | 1.연표만들기  - 공옥진의 생애사, 현대사,세계사 정리    2. 춤 연습  - 살풀이, 옹헤야, 병신춤 |
| 공지사항 | 남산 성폭력교육 |
| 연출부 고려사항 |  |
| 해야 할 일 |  |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80714토@정릉연습실 |
| 참여인원 | 연출: 윤한솔/ 조연출: 강대영  배우: 박하늘 원규리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
| 내용요약 | 인터뷰 질문, 댄스센트럴 |
| 내용 | 1. 인터뷰 질문  누구를 인터뷰 할 지.인터뷰에 대한 계획, 개별질문, 공통된 질문(비교가능한 큰 주제로 5개 내외)  춤in은 남산에서 진행을 도와줄 수도 있다,  \*미영지현하늘  극단애인 예슬님과 연락 한 상태. 김지수대표님 인터뷰한 영상.  여성1, 대표님, 예슬님 했으면 좋겠다. 희의해보고 연락 줌.  좌담에서도 요청을 드릴수도 있다.  7월 중 대학로에서 할 예정. 만약 안되면 권은영님.  ㄴ따로 하면 어떨지 예슬님과.  \*규리지연  유남님 외소증 인터뷰. 다음주 이 후에서 7월 말까지 시간 중 조율 중.  \*양아정희  장애인예술가와 작업한 예술가를 인터뷰 할 예정. 여행자 범진님  극단이 그런 것과 배우가 그런 것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ㄴ연출가 혹은 안무가를 알아 보는게.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한 경우.  최지연 지인분에게 연락해 볼 예정.  2. XBOX댄스센트럴 |
| 공지사항 | 인터뷰 일정잡기, 질문들 생각하기. |
| 연출부 고려사항 |  |
| 해야 할 일 |  |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80713금@정릉연습실 |
| 참여인원 | 연출: 윤한솔/ 조연출: 강대영  배우: 박하늘 원규리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스텝: 조유림 송혜현 |
| 내용요약 | 춤 워크숍(김윤진안무가), 회식 |
| 내용 | 1. 춤 워크숍(김윤진안무가)  -살풀이, 옹헤야, 병신춤 배웠던 것 총 마무리  2. 회식. |
| 공지사항 |  |
| 연출부 고려사항 |  |
| 해야 할 일 |  |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80712목@정릉연습실 |
| 참여인원 | 연출: 윤한솔/ 조연출: 강대영 (강대영불참)  배우: 박하늘 원규리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스텝: 김민승, 송혜현 |
| 내용요약 | 춤 워크숍(김윤진안무가), 몸의 철학, 몸에 관한 단본(김민승) |
| 내용 | 1. 춤 워크숍(김윤진안무가)  -병신춤, 살풀이 연습  2. 몸의 철학, 몸에 관한 단본(김민승) |
| 공지사항 |  |
| 연출부 고려사항 |  |
| 해야 할 일 |  |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80711수@정릉연습실 |
| 참여인원 | 연출: 윤한솔/ 조연출: 강대영 (강대영불참)  배우: 박하늘 원규리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
| 내용요약 | 춤 워크숍(김윤진안무가), 공옥진 영상 재담채록 |
| 내용 | 1. 춤 워크숍(김윤진안무가)  -병신춤, 살풀이 연습  2. 공옥진 영상 재담채록  -판소리가 아닌 재담들 채록. |
| 공지사항 |  |
| 연출부 고려사항 |  |
| 해야 할 일 |  |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80710화@정릉연습실 |
| 참여인원 | 연출: 윤한솔/ 조연출: 강대영 (강대영불참)  배우: 박하늘 원규리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
| 내용요약 | 춤 워크숍(김윤진안무가), 공옥진 수궁가 dvd |
| 내용 | 1. 춤 워크숍(김윤진안무가)  -병신춤, 살풀이 연습  2. 수궁가 dvd 시청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고통스러운 것  관객이 보기에 무대에 서 있는 자체로 슬프고 고통스러워야 하는 것. |
| 공지사항 |  |
| 연출부 고려사항 |  |
| 해야 할 일 |  |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80709월@정릉연습실 |
| 참여인원 | 연출: 윤한솔/ 조연출: 강대영  배우: 박하늘 원규리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황미영불참)  스텝: 김민승 |
| 내용요약 | 정상의 기준, 김민승선생님 발제문과 관련된 단상, 인터뷰 회의 |
| 내용 | 1. 정상의 기준 정하기  -정상이라함은 무엇인지.  건장한 성인남자(20세고졸이상), 성인표준키 몸무게, 몸 멀쩡, 눈 멀쩡, 귀 멀쩡, no기형(흉터,문신등), no탈모, no털,  기혼, 비혼, 자식, 부모, 월수입-200? , 집 (자가 전세 월세 임대), 학력, 서울, 이성애자, 아프지않은사람, 군필, 색맹, no다문화가정,  2. 김민승선생님 발제문과 관련된 단상  - 김민승드라마터그  차이를 그대로 두자 - 타자성 동시에 있을 수 있는가.  타자성을 과연 극복하는 것에 대한 의문.  차이를 무마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윤한솔연출님  정치적올바름, 나의 이익이 가깝지 않았음.  암묵적으로 나의 이익에 관련해 묵인하고 있었음.  그래서 결국 왜 병신춤을 하면 안 되냐는 것.  3. 인터뷰 회의  - 공연팀에서 먼저 알아보고 남산에 협조 구하는 방향. 둘 중에 한번만 공식적으로. 하나는 비공식적으로 진행예정. 개별적 인터뷰도..(녹취) 가능한 1:1이되 힘들면 1:2도 가능 7월중으로 진행  다같이 하는 건 8월 중. |
| 공지사항 |  |
| 연출부 고려사항 | 인터뷰 일정 조율 |
| 해야 할 일 |  |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80707토@정릉연습실 |
| 참여인원 | 연출: 윤한솔/ 조연출: 강대영  배우: 박하늘 원규리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황미영불참) |
| 내용요약 | 발제문 |
| 내용 | 1. 발제문  - 4장 거부당한 몸으로부터 떠나는 비행2 발제자(임정희)  몸에 대한 통제의 환상. 부정보단 결국 모정이다. 같이 육아를 해도 엄마라는 그것이 있다. 하지만 물리적시간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폭력,혐오,차별이 있다고 혹은 없다고 믿어도 나랑은 관계없다고 느끼는 것. 약자들이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것 같다.  질병과 장애도 평범한 삶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야 한다. 결국엔 그럴려면 노출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6장 장애와 여성주의 윤리학 (발제자 최지현)  여성주의 관점을 가진 장애의 경험을 한 사람들의 분석.  돌봄의 윤리.  돌봄을 주고, 받는 나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은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가?  - 7장 여성주의, 장애, 그리고 몸의 초월 (발제자 정양아)  고통받는 몸 고통없이는 인식되지 않는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과연 무엇일까?  비장애인인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없다면 작가가 기하는 장애인의경험들을 어떻게 찾아 봐야 할까, 탈육체화는 정말 가능할까  '고통받는 몸' 에서 고통의 정의는 어디까지일까. 장애와 질병의 구분은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장애인을 우리와 다르지만 동일한 몸.이라고 인식이 과연 가능한가? 그것이 가능해야 비하가 아닌 것 같은데 말이다. |
| 공지사항 |  |
| 연출부 고려사항 |  |
| 해야 할 일 |  |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80706금@정릉연습실 |
| 참여인원 | 연출: 윤한솔/ 조연출: 강대영  배우: 박하늘 원규리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스텝: 민경현(음악) |
| 내용요약 | 춤 워크숍(김윤진안무가), 발제문 |
| 내용 | 1. 춤 워크숍(김윤진안무가)  -한국무용의 호흡을 몸으로 느끼고 익히기.  -풍차준비, 까치동작, 놀부전 살풀이 연습  2. 발제문  -3장 차이로서의 장애 발제자(최지연)  -4장 거부당한 몸으로부터 떠나는 비행 발제자(원규리) |
| 공지사항 |  |
| 연출부 고려사항 |  |
| 해야 할 일 |  |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80705 목@정릉연습실 |
| 참여인원 | 연출: 윤한솔/ 조연출: 강대영 (윤한솔 불참)  배우: 박하늘 원규리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
| 내용요약 | 춤 워크숍(김윤진안무가), xbox 키네틱 '댄스센트럴' |
| 내용 | 1. 춤 워크숍 (김윤진안무가),  -굿거리장단, 공옥진선생님 살풀이 춤 연습.  2. xbox 키네틱 '댄스센트럴' 연습 |
| 공지사항 | X |
| 연출부 고려사항 | X |
| 해야 할 일 | X |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80704수@정릉연습실 |
| 참여인원 | 연출: 윤한솔/ 조연출: 강대영  배우: 박하늘 원규리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
| 내용요약 | 춤 워크숍(김윤진안무가), 발제문 |
| 내용 | 1. 춤 워크숍(김윤진안무가)  -공옥진 '놀부전 살풀이' 연습.  -곡선적 기본자세에서 응용한 크고, 작은 움직임.연습  2. 발제문  -2장 장애의 사회적 구성 발제자 (박하늘)-  -3장 차이로서의 장애 발제자(최지연)  \*발제문을 읽고..  -2장 장애의 사회적 구성 발제자 (박하늘)  전세계의 15%가 장애인. 장애를 해체하려고 할 때의 걸림돌이 무엇인가.  정상과 장애 구별되는 것 깨기에 대해 긍정적 생각이 들었으나 앞 전에 내용을 듣고 조금 깨기도,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돌봄을 해야 하는 것이 왜 여성이어야 하냐는 것? 돌봄 노동 자체를 여성이 주 인 것 같다. 공사장일을 남자가 주로 하듯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성이 하지 않나.  공적 영역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도 교육을 받았어야 하나 충분하지 못했거나 없다. 교육의 시스템이 충분히 주어줘야 하나 그렇지 못함.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차별 하는 것이 문제.  장애인범죄지수, 장애인의 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다. 우리나라는 거의 0에 가깝다.  -3장 차이로서의 장애 발제자(최지연)  타자성의 서사.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의 아들은 어떤 기분일까?'  장애인을 보고 이런 서사들이 상상되면서 차별이 되는 것. |
| 공지사항 | X |
| 연출부 고려사항 | X |
| 해야 할 일 | X |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80703화@정릉연습실 |
| 참여인원 | 연출: 윤한솔/ 조연출: 강대영  배우: 박하늘 원규리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스텝: 조유림PD, 송혜현AD |
| 내용요약 | 발제문. 춤 워크숍(김윤진안무가) |
| 내용 | 1. 발제문    -1장 누가 장애인인가? 장애를 정의하기 발제자(임정희)  -2장 장애의 사회적 구성 발제자 (박하늘)-  2. 춤 워크숍(김윤진안무가)    -자기만의 병신춤, 한국무용 호흡(움직임), 옹헤야 |
| 공지사항 | 살풀이 할만한 스카프 같은 것 가져오기, 6일 민경현감독님 참관예정 |
| 연출부 고려사항 | X |
| 해야 할 일 | X |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80702월@정릉연습실 |
| 참여인원 | 연출: 윤한솔/ 조연출: 강대영  배우: 박하늘 원규리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
| 내용요약 | 춤In 좌담, 김설진 피핑톰 시청 |
| 내용 | 1. '춤 in' 좌담    \*좌담을 읽고..  정상인들의 감동을 위해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것처럼 왜 그렇게 해야 하냐는 것. 기예를 보는 듯  결국에 어떻게 하든, 재현이라는 형식이 갖는 어떤 문제들이 들어날 텐데.  병신을 재현하는 정치적 문제는 벗어날 수 없지만, 이런 작업들을 하면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정체성을 부각해서 웃음이든  울음이든 감동이든 소수자의 입장을 공연한다고 할 땐 기분 나쁘지 않게 공연을 함. 방어하기 위해.  장애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창작에 방해 받고 싶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 장애를 잘 알아야 한다.  비하가 아니라고 장치를 만드는 것이 아주 큰 비하가 됌. 장치가 없이 되야 한다는 것. 병심춤이 춤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법!  2. 유튜브영상 김설진 피핑톰 시청 |
| 공지사항 | 다음 월요일부터2~3번 드라마터그(김민승)와 연습 예정 |
| 연출부 고려사항 | X |
| 해야 할 일 | 장구 수리, 고프로 영상 확인. |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80630토@정릉연습실 |
| 참여인원 | 연출: 윤한솔/ 조연출: 강대영  배우: 박하늘 원규리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
| 내용요약 | 논문, 신체의미학발췌, 춤워크숍논의 |
| 내용 | 1. 공옥진의 일인창무극연구(김현정) 논문 p138~  2. 신체의미학  -6장 '움직임이라는 형태의 사고'  -7장 '구경거리로서의 육체'  \*논문과 발췌문을 읽고 나서..  즉흥에 관한 얘기긴 한데, 공옥진의 춤을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공옥진의 춤이 어떤 기호로써 발생되는 것. 예를 들면 원숭이면 원숭이를 의미하는 것인데 공옥진의 움직임. 즉흥성이 많다. 그것들을 우리 식으로 풀어서  표현하는 것이 어디까지일지는 모르겠으나, 춤을 묘사 재현하는 것을 노력 하는 것과 공옥진의 몸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 공옥진의 몸은 어떤 몸인지?? 내가 어떤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움직임 이런 욕구들 충동들을 공연에 개입시키는 것이 있을까 고민이다.  장애를 규정하는 것은, 신체 그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의 가치. 장애의 규정은 문화의 문제, 권력의 문제. 하지만 솔직하게, 내 권력을 포기하면서 까지 공감하고 싶지 않은 것. 이것을 찔러야 한다. |
| 공지사항 | \*\*논문, dvd 공옥진 자기애기를 하거나 도입부분을 채록 해야함.서두,도입부, 판소리 내용이 아닌데 하는 얘기들. 자기얘기  \*\* kbs 다큐에서 pd가 공옥진에게 노트북으로 영상 보여주는 장면 장터에서 하는 장면, 광주kbs 통 영상이 있다는 것. 찾아보기.  \*\*거짓말하는 연습으로 자기얘기랑 공옥진 얘기 섞어서 그럴 듯한 얘기쓰기.  \*\*mbc 아카이브 보고싶은 것들 정리하기. 이것은 보면 좋겠다. |
| 연출부 고려사항 | X |
| 해야 할 일 | X |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80629금@정릉연습실 |
| 참여인원 | 연출: 윤한솔/ 조연출: 강대영  배우: 박하늘 원규리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
| 내용요약 | 영상예술원 자료열람, 극단애인 공연 단관 |
| 내용 | 1. 영상예술원(서초) 자료열람  '흥보전', '공옥진의1인창무극'  2. 극단애인 공연 단관(조건만남, 기억이란 사랑보다). |
| 공지사항 | X |
| 연출부 고려사항 | X |
| 해야 할 일 | X |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80628목@정릉연습실 |
| 참여인원 | 연출: 윤한솔/ 조연출: 강대영  배우: 박하늘 원규리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
| 내용요약 | 논문, DVD |
| 내용 | 1. 공옥진의 일인창무극연구(김현정) 논문 읽음 p85~137    \*논문을 읽고..  공옥진의 춤을 예를들면 디스코 비트에 춤을 추어도 신명이 나는지.  2. DVD'KBS 1인창극 공옥진 다큐 시청', '공옥진 놀부전' |
| 공지사항 | 김윤진선생님께 할 얘기 생각해놓기 |
| 연출부 고려사항 | X |
| 해야 할 일 | 댄스센트럴2,3 추가 구입 |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80627수@정릉연습실 |
| 참여인원 | 연출: 윤한솔/ 조연출: 강대영  배우: 박하늘 원규리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
| 내용요약 | 논문, DVD |
| 내용 | 1. 공옥진의 일인창무극연구(김현정) 논문 다 같이 읽음 p31~ 85  \*논물을 읽고  p52,53(현존, 현전) 향후 연습과정에서 인용 및 다시 다뤄질 것.  공연 중 예를 들어 어떤 역을 하는 것에, 연출님 생각: 역할, 비극적 인물을 연기할 때 그 인물을 표현 할 때 나 자신이 100% 그렇게 되지 않음에  혼란. 그런식 역할이 부여 될 것. '사실 제가 공옥진의 수제자 인데요.' 하지만 공옥진의 수제자가 될 수 없는.  그 말을 믿게 하는것이 목적이 아닌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포인트.  관객들의 욕구를 배신하는 것. 관객들은 공옥진의 수제자라는 것을 믿고 싶어 하는 것, 그 욕망을 역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본질을 더 부각 시키는 것. 우리가 하려는 공연의 의도를 부각시키려는 것.  공옥진의 수제자가 거짓말인 것을 알면서 그것을 분명히 듣게 되는 것.  '김익도' 가 쓴 다른 글 에서도 인물이 완전히 되지 않음으로써 균열. 그 거리를 관객들이 느끼는, 모방된 원숭이보다 그것을 모방하는 공옥진이 더 보이는 것 처럼.  2. dvd '심청전', '전통춤(허튼춤)' 시청 |
| 공지사항 | 6월29일 서초동 예술자료원 자료 단체열람 후 극단 애인 공연 단관. |
| 연출부 고려사항 | X |
| 해야 할 일 | 극단 애인 공연 단관예매. 춤 워크숍 촬영용 카메라 준비. |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80626화@정릉연습실 |
| 참여인원 | 연출: 윤한솔/ 조연출: 강대영  배우: 박하늘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원규리 불참) |
| 내용요약 | 논문, DVD |
| 내용 | 1. 공옥진의 일인창무극연구(김현정) 보면서 각자 찾아온 자료들의 내용을 구연하는 식.  춤에 대해 쓴 사람은 별로 없음, 거의 다 전통이라는 맥락에 대해 서술. 김현정께 춤에 대해 좀 .  김현정 논문 다 같이 읽음. p1~30  \*논문을 읽고,,  한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지금 시대에 한이 있나?  한의 정체. 한의 감수성. 꼭 한이 아니더라도 그에 맞는 정서를 가지고 공연해야한다.  김상봉철학 한이란 운동성을 지향하는 성격. 예를 들면 한 때문에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것  2. 'mbc 아카이브 성공시대', '심청전' 시청 |
| 공지사항 | 연습복 준비, 6월29일 서초동 예술자료원 자료 단체열람 |
| 연출부 고려사항 | X |
| 해야 할 일 | 공옥진의 심청전대본 타이핑,. |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80625월@정릉연습실 |
| 참여인원 | 연출: 윤한솔/ 조연출: 강대영  배우: 박하늘 원규리 임정희 정양아 최지연 최지현 황미영 |
| 내용요약 | 연습 방향, 일정., 공연의 방향 논의 |
| 내용 | 이번주는 전통과 공옥진, 장애에 관해 공부.  장애인과 작업한 연출가, 무용가 혹은 장애를 갖고 있는 연출가, 무용가와 인터뷰 하기 .  공옥진의 병신을 누가 더 잘 따라하느냐가 아닌 현시대 우리가 하는 병신되기는 무엇이냐를 찾는 여정. |
| 공지사항 | 장애인과 작업한 연출,무용가 혹은 장애가 있는 연출, 무용가와 인터뷰.  9일 이후 드라마터그님과 3차례 같이 연습예정 |
| 연출부 고려사항 | X |
| 해야 할 일 | 자료집 공유 |